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7, Vol. 8, No. 3, pp. 189-222.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또래상담 정착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

노성덕(盧星德)*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이 어떻게 정착해가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16개 사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또래상담전문지도자들로부터, 각 관할 지역 내에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또래상담 정착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고등학교를 추천 받았다. 총 52개의 고등학교가 추천되었는데, 연구자가지역을 고려하여 15개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초기부터 관여한 교사 면접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2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담당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자료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연구참여자들은 '또래상담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중심현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상담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가증시키는 주요한 맥락은 '관리자의 무관심'과 '부적절한 학교환경'인 것으로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중심현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중재적 조건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외부에 알려짐', '운영 중 기대 밖의 결실' 등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은 '상담교사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주변인을 설득하기', '또래상담반조직화' 및 '또래상담자 교육하기', '지속적 활동내용을 개발하기', '기록을 남기기'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중심현상에 대해 맥락과 중재적 조건, 그리고 상담교사의 작용/상호작용 결과 '또래상담자들이 변화'되었고, '주변인들이 또래상담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상담실 확보, 예산확보, 불박이 상담부장, 신입회원 선발 및 반 배정시 또래상담반 별도반배치 등 '학교 여건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학교 내에서 또래상담이 정착되게 하였다.

■ 주요어 : 또래상담, 또래상담 정착과정, 학교상담, 근거이론

^{*} 한국청소년상담원 조교수

I. 서론

또래상담은 학교 상담의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래상 담이란 소정의 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문가의 지도하에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이 가지고 있 는 문제를 돕는 활동을 말하는데(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4),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까지 48,500여명의 또래상담자가 양성되었고, 5,700여명의 교사 및 상담자가 또래상담지도자로 양성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2001년도에 학교급별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전국 37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3,025명이 또래상담자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노성덕, 이문희, 2001). 우리사회 통념상 학교는 입시를 전제로 공부에 중점을 두는 곳이다. 그래서 학습에 도움 이 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또래상담은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 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며, 학교 인성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프로그램으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경기도교육청, 2004; 김계현, 권대훈, 이상란, 이창호 등, 2003;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2003). 이렇게 또래상담이 학교에 적용되는 이유는 또래상담이 친구에게 고민을 먼저 털어 놓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다는 점과(구광현, 이 정윤, 이재규, 이병임, 은혁기, 2005; 천성문, 설창덕, 2003; Carr & Saunders, 1998; Cole, 2001; Myrick & Sorenson, 1997), 상담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학교상담 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담 보조 인력을 제공해 준다는 독특한 이점 때문이다(김계현 등, 2003; 안창일, 1999; 연문희, 강진 령, 2002; 이상희 등, 2004; 이재규, 2005).

하지만 그러한 이점들이 있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 또래상담이 환영 받으며 정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많은 연구자들은 학교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지식교육 위주의 학교 분위 기에서도 또래상담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들에 관심을 가져 왔다(금명자, 장미경, 양미진, 이문희, 2004; 김진희, 이상희, 노성덕, 1999; Brackenbury, 1995; Carr, 1998; Cole, 2001; Tindall, 1995). Tindall(1995)은 또래상담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운영 단계를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자인데, 그는 또래상담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또래상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계획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효과적이면서 구조화 된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③ 단기적 참만남 집단이나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웍샵은 또래상담자를 훈련시키기에 부족하다. ④ 훈련프로그램이 반드시장기적일 필요는 없으나, 훈련대상자들이 훈련내용을 충분히 통합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다. ⑤ 감수성과 따뜻함 및 타인에 대한 인식과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훈련대상자로 선발할 때 훈련의 효과가 크다. ⑥ 수퍼비전이 중요하다. ⑦ 또래상담 활동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⑧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람들은 또래

상담의 의미와 적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⑨ 또래상담자 훈련 및 상담활동 도중, 이들을 전 문상담자들이 싫어하는 잡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⑩ 또래상담의 윤리적 측 면에 대해 훈련대상자들이 충분히 배우고 지도받아야 한다. ① 또래상담자들은 너무 다른 가 치체계를 가진 집단들보다는 자기의 또래들을 조력하여야 한다. ⑩ 적절하게 훈련된 또래상담 자들은 AA와 같은 지지그룹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전문상담자 는 훈련자로서 뿐만 아니라 조정자, 촉진자, 조직자 및 평가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 다. Tindall(1995)의 제안은 입시를 중요한 학교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김진희 등(1999)이 또래상담을 이미 정착 수준으로 운영 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Tindall(1995)이 제시한 절차와 상당히 일치함 을 보여주었다. 전국 473개 학교 교사와 8,897명의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오혜영, 지승희, 조은경, 백현주, 신주연(2006)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런 연구결과들은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매우 많은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또래 상담이 학교에 어떤 이점을 주기에 입시 강조라는 현실 속에서도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 가?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 습에 매진하는 것이 통상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학습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 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텐데 또래상담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 정착되어가는 것인 가?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전자의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 또래상담 성과연구들을 리뷰하고 메타분석 한 바가 있다(노성덕, 김계현, 2004). 연구 결과 또래상담은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큰 이점 이외에도 학교에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어떤 과정을 겪으면 서 또래상담을 학교에 적용시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고 등학교, 특별히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해가는지

Ⅱ. 방법

를 알아보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대상

근거이론에서는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해 참여자를 선정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노성덕과 김계현(2007)이 델파이 연구를 통 해 얻은 7개의 정착기준을 만족시키는 2개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의 또래상담 담당교사를 대상

| 번호 | 내용 |
|----|--------------------------------|
| 1 | 학교에 또래상담반이 구성되어 있다. |
| 2 | 또래상담 전문 훈련을 받은 담당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
| 3 | 학년마다 기수가 조직되어 있다. |
| 4 | 월 1-2회 교육이 진행된다. |
| 5 | 훈련 및 활동지도 시간이 연간 30시간 이상 진행된다. |
| 6 | 고민이 있을 때 학생들이 또래상담자를 찾는다. |
| 7 | 또래상담반이 4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

<표 1> 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 정착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 별칭 | 성 | 연령 | (교과)직급 | 또래운영연수(운영기간) | 최종학위 | 학교소재지 |
|-----|---|-----|------------|--------------|------|-------|
| 최경옥 | 여 | 50대 | (가정)인성상담부장 | 8년(1998현재) | 석사 | 경기도 |
| 김성권 | 남 | 50대 | (도덕)상담부장 | 9년(1997현재) | 석사 | 서울특별시 |

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표 1>의 정착기준을 청소년상담원 또래상담 담당부서와 16개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또래상담전문지도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학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여 정착기준을 만족시키는 학교와 또래상담 담당교사를 추천받았다. 총 52개 고등학교가 추천되었는데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15개교를 선정한 뒤, 또래상담 정착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면서 또래상담 초창기부터 관여한 교사면담이 가능한 2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2개 학교의 선정은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부터 또래상담전문지도자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카운슬러의 평가와 연구자의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대상학교를 선정한 후 면접, 부분적인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면담하기 전에 연구참여자가 재직 중인 학교의 또래상담반 운영계획(또는 활동계획), 또래상담 소식지 등을 읽으면서 또래상담 정착활동을 문헌자료로 경험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재직 중인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의 또래상담 담당 전문상담자와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활동상과 또래상담 운영의 특성 등에 대해 접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정착과정이라는 현상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소속되어 또래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 학교교사,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거나, 운영에 대해 자문하면서 관련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범부분석과 패러다임분석을 실시하면서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비교하

기'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비교하기'는 연구대상자들로부터 면접을 통해 얻은 자 료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분류하는 작업이다. 연구자는 먼저 최경옥이 재직 중인 학교에 방 문하여 2회에 걸쳐 면접을 실시 한 후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또래상담전문지도자 이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1급 청소년상담사와, 근거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1급 청소년상담 사로부터 개념과 범주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으며, 그들의 피드백 결과를 자료에 반영하였다. 그 후 김성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경옥 면접으로부터 얻은 개념 및 범주와 비교하 면서 자료를 보강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불명확한 주제와 개념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차례 현장방문 및 참여관찰, 3-4회에 걸친 추가 면접, 수회에 걸쳐 전화면접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자료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 분석은 원자료에서 개념(concept)을 발견하고 명명하며,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 들을 하위범주(subcategory)로 묶은 후 범주(category)화하는 작업이다. 근거이론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개방적 코딩이라고 한다. 연구자는 축어록을 한줄 씩 읽으면서 분석해가는 줄 단위 분 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진술에 밑줄을 그으면서 개념을 명명해나갔다. 명명은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비슷한 여러 개념들을 추상화 하여 명명하기도 하였다. 정착과정분석은 범주들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를 찾아내면서 새로운 자료조합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근거이론에서는 중추적 코딩이라고 한다(Strauss & Corbin, 1998). 정착과정분석은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을 포함하며, 연구자는 범주 들을 구조와 과정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들, 작용/상호작 용 전략들, 그리고 결과를 진술하였다.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또 래상담전문가 2인, 상담전공 교육학박사 1인, 근거이론으로 논문을 쓴 교육학 박사1인 등 상담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보고서 작성 후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 대상자와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또래상담을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된 학교의 교사 2명으 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3.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 용가능성(applicatility), 일관성(consistency) 등의 기준을 따랐다(Guba & Lincoln, 1981)

① 사실적 가치(truth value) :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연구의 발견이 실재를 얼 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나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마친 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을 거쳤다.

결과를 보여주고 각각의 개념과 요인 및 과정이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정

②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양적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자만큼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교사 2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연구결과가 본인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③ 일관성(consistency): 양적연구에서 신뢰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되었을 때 연구결과가 동일한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절차를 따라 연구하였을 때, 다른 연구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급 청소년상담사 소지자인 박사1인, 또래상담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2인,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1급 청소년상담사 1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Ⅲ. 또래상담 정착과정 분석

1. 면접자료의 범주 분석

연구대상자들과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한 줄 한 줄 읽어 가면서 개념을 명명하고, 이 개념들을 범주화하고 비교와 질문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갔다. 이런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166개의 개념과, 54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20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2. 또래상담 정착과정 분석

또래상담이 고등학교에 정착되어지는 과정을 근거이론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모형에 입각 하여 분석하였다.

1) 또래상담 시작과 중심현상의 이해 : 또래상담 활용으로 어려움 발생

연구자는 참여자들과의 면접에서 참여자들의 경험 가운데 중심이 되는 현상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중심현상은 연구 참여자들이 또래상담을 시작 한 이후 "무엇을 위해 가

[그림 1] 중심현상을 축으로 구성한 분석모형

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라는 질문과 관계가 깊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또래상담을 활용하면서 '교장/교감의 무관심', '동료교사의 비협조 및 부정적인 학부모', '미숙한 또래상담자로 인한 스트레스', '과중한 과외업무 발생' 등에 대처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또래상담 활용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또래상담 활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중심현상』으로 정의하고 이 『중심현상』을 유발시킨 "또래상담 활용"을 『인과적 조건』으로 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중심현상』인 "어려움 경험"을 가중시키는 조건들을 『맥락』으로, "어려움 경험"을 감소시키는 조건들을 『중 재적 조건』으로, 『중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참여자의 전략을 『작용/상호작용』으로 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현상』과 『맥락』에 대한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의 영향으로 나타난 개념들을 분류하여 『결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참여자(이하 '참여자')들은 상담부 교사로 임명되면서 또래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을 시도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또래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 첫째, 상담교사로 임명된 후 학생들을 상담하고 싶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상담실을 방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 상담실이라는 곳이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고자 했을 때, 상대해야 하는 학생들을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보조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김성권: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실 부장으로 있다보니까 <u>학교상담실이 역할을 기능을 전혀</u>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저 혼자만 학생들을 상담한다? <u>상담실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아이도, 아이들도 없을 뿐 아니라,</u> 또 의뢰를 해서 온다하는 아이들도 (음) 상담실 그러면은 야단맞고 (음) 뭐 혼나고 (웃음)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서 <u>상담실을 기피하는 경향</u>성이 많았죠.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최경옥 : 상담부장을 하는데, 상담실에 <u>학생들이 자진해서 방문하는 일이 적어서 상담실에 상담할</u>일이 있었으면 하는 것 하고요, 중간에 <u>무슨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u>일일이 각 반을 다닐 수도 없고... 아 이게 너무 좋겠다. 해서 혼자 또 상담하는 것보다 <u>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몇배의 효과가 있</u>을 것 같고.....

둘째,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또래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 상담실을 찾지 않고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담교사가 된 참여자들은 학생들끼리 이야기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경옥 : <u>아이들이 친구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해서 관심을 갖게 되</u>었고.., 그래서 98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상담교사로 일하면서 학교상담실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상담실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학생들을 찾아나설 마음도 먹었다. 하지만 혼자 다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참여자들은 학생을 상담할 수 있는 매개체, 또는 상담 보조 인력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때마침 또래상담을 알게 되었고, 연수를 받으면서 '이거다' 싶어 교육을 마친 후에 또래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과적 조건인 '또래상담 활용'으로 참여자들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이 어려움은 '업무과중', '미숙한 또래상담자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교사들의 비협조', '부정적인 학부모'라는 범주로 요약되었다.

(1) 상담교사의 업무 과중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상담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과외업무들이 생겼다. 혼자서 또 래상담자들을 관리해야 하고, 담임교사나, 보직에 맞는 활동도 해야 했다. 그래서 돕는 교사가 더 필요했다. 이런 것들은 또래상담을 운영하면서 면접대상자들이 겪어야 했던 첫 번째 어려움이었다.

최경옥: 교사 혼자서 하다보니 <u>교사가 하나 더 필요하다</u>. 근데 그게 안 되서 첫해 애로를 겪었구요, 그리고 혼자서 하고 담임도 했습니다. 근데 담임도 하면서 혼자 지도하기에는 각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

김성권 : 혼자서 하다 보니까 담임도 해야되지요, 부장도 해야되지요, 심지어는 애들 개별상담도 해야되지요. 또래상담 아이들 관리도 해야되지요. 뭐 행사도 해야되지요 등등 하다보니까 힘이 부쳐요....

(2) 미숙한 또래상담자로 인한 스트레스

미숙한 또래상담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담교사들이 직면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 면접 대상자들은 학생들을 또래상담자로 교육시키고 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또 래상담자', '공부 때문에 시간 투자를 꺼리는 또래상담자', '사고치는 또래상담자', '잘못 선발된 또래상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최경옥 :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또래도 하고 싶다. 혹시시간을 빼앗기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교육 시켜야 되는 것, 이게 애로사항이었죠..........성적이 잘 나오는 또래상담부는 괜찮은데 <u>자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을 경우에 본인이 가끔 힘을 잃는 경우</u>도 있구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구요.... 또래의 친한 친구들이 또래 자체가 아직 성숙한 어른이 아니라서 <u>부족한 학생 또래 그런 경우에 이제 친구들이 그걸</u>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후배 또래 <u>선배가 너무 똑똑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u>하는 또래 그런....

또 대상담자가 중간에 그만두려하거나, 사고를 쳤을 때는 상담교사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대상담자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학교 관리자나 동료교사들에게 변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선도에 걸리거나 행동이 불량해서 지적받는 경우에도 또 대상담반 전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교사에게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3) 동료교사들의 비협조

또래상담을 운영하고자 할 때 학교 동료교사들의 비협조인 태도를 경험해야 했다. 교사들은 또래상담자를 모임에 안 보내거나, 프로그램 도중 또래상담자를 불러가거나, 또래상담자가 문 제를 일으키면 못 참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성권: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을 뺏는 것, 그것 자체가 거부감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u>아이들이 인제 모인다고 나가는 것을 안 보내주죠</u>.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다 모여야 뭘 일을 할텐데, 모이지 않으니까 일은 또 안 나가는 거죠.

최경옥 : <u>담임 선생님이 때로는 방해가 될 때</u>도 있었습니다..... 또 학생이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참아주고 봐주면 좋은데 <u>조금 못 참으시는 선생님이 조금 부정적</u>인 영향을 미치죠.

(4) 부정적인 학부모

학부모의 반대 또한 상담교사가 겪어야 하는 큰 어려움이었다. 학교내의 구성원들이나 자신의 업무과중보다도 외부에서 학부모로부터 오는 부정적 피드백은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민원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다.

최경옥:보통 학부모들이 또 성적이 안나오면 또래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나오나? 가끔 <u>부</u> 정적인 학부모들이 계신데.........그런 요인들이 제일 어렵구요, 사실 <u>학교 안의 것은 문제도 안되구</u> 요, 가끔 부정적인 학부모 이런 경우에 조금 극복하기 어려웠는데.....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참여자들이 또래상담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경험하게 된 중심적인 현상은 '또래상담 활용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이었고, 그것은 '업무과중', '미숙한 또래상담자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교사들의 비협조', '부정적인 학부모'의 하위범주로 요약되었다.

2) 맥락: 어려움을 가중시킨 상황

맥락은 현상에 더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유지시키거나 가중시킨 조건을 말한다. 또래상담을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은 관리자의 비협조와 또래상담 활동에 적절하지 못한 학교환 경으로 인해 유지되거나 심화되었다.

(1) 관리자의 무관심

관리자는 상담교사의 또래상담 활동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인물이기 보다는 학교에서의 또 래상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중립적으로 방임하는 태도를 가졌던 관리자도 학부모나 담임교사의 반대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상담교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

김성권 : 공부를 시켜야 될 담임교사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을 뺏긴단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런거 하지 마세요' (아...) '그냥 상담만, 학생들 상담만 하세요' (음) 하는 이런 (웃음) 정도였습니다.

(2) 부적절한 학교 환경

학교에서 또래상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래상담을 하도록 학교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래상담 활동 자체가 학교환경과 부딪치게 되었으며, 그것은 또래상담 지도교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부적절한 학교환경은 '학교상담실에 대한 오해', '진학문제' '빈약한 여건' 으로 하위범주화 되었다. 첫째, 학교는 또래상담 뿐만 아니라 상담 자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또래상담자를 인정하고 활동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김성권:심지어는 <u>학교에서조차도 상담이라 그러면은 거리가 멀어요</u>. (음..) 학교장 이하 상담실에 관해서도, 상담실 그러면은 저기 저 열외로 생각했었거든요.

둘째, 진학에 초점을 맞춘 학교 운영도 현상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맥락이었다. 대학 진학문 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또래상담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최경옥 : ... <u>인문계 고등학교니까 대학을 진학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u>이 있구요,.....보통 <u>학부모들이 또 성적이 안나오면 또래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나오나</u>? 가끔 부정적인 학부모들이 계신데.....

이런 대학 진학에 대한 압박은 또래상담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형태로 나타나 기도 하였다. 또래상담 활동 때문에 공부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것은 입시위주의 현 인문계 고 등학교 맥락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김성권 : 공부를 시켜야 될 담임교사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을 뺏긴단 말이죠......

셋째, 앞서 제기된 관리자의 무관심과 부적절한 학교 환경은 또래상담을 전개할 토대를 빈약하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또래상담자를 지도할 인력을 보충해주지 않는 것과, 훈련하고 수퍼비전할 상담실을 확보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예산지원에 무관심한 형태로 나타났다.

최경옥: 우선 혼자 하기가 인원이 너무 많았구요, 전체 50명이 넘는 인원인데 한 반에 있는 게 아니고 각 반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혼자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도교사 하나는 더 같이 있어야지 하는 것과 좀 더 바람직하다면 학년별로 한분씩 계시면 좋겠다. 예산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 개인적인 비용이 좀 들었죠(웃음).

맥락은 현상에 영향을 미쳐서 어려움을 가중시킨 상황인데,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의 무관심', '부적절한 학교 환경'으로 범주화 되었다. '관리자의 무관심'은 참여자의 '업무과중'을 유지시키거나 심화시키고, '동료교사 비협조'를 가중시켰다. '부적절한 학교환경'은 업무과중, 미숙한 또래, 동료교사 비협조, 부정적인 학부모 등 또래상담 활용으로 발생한 현상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3) 중재적 조건 :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준 요인들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요인들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외부에 알려짐', '운영 중 기대 밖의 결실' 등으로 범주화 되었다.

(1) 외부로부터의 지원

연구참여자들을 외부에서 지원한 기관은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였다. 그리고 대학원 재학중에 알게 된 교수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들이 면접대상자들을 도운 전문가들이었다. 외부 전문가들은 또래상담에 대해 자문해주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상담센터는 또래상담자를 훈련시켜주고,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내담자를 의뢰 받아주었으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주었다. 이런 지원을 통해 학교 상담교사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최경옥 : 학생들 연수할 때 전문상담인이나 보조교사를 내보내 주시구요, 캠프 때 <u>비용을 지원</u>해주시구요,또 <u>교장, 교감 관리자 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구요</u>, 00시청에서도 <u>물질적인 지원을</u> 해주시고. 그 외엔.... 그 정도 생각이 납니다........... 또래상담자 훈련을 전적으로 <u>OO시청</u>소년상담실에서 맡아해주고 있어요. 전문상담자들이 학교에 들어오죠.

또 지역상담센터는 연합캠프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 또래상담자들 끼리의 연계에도 도 움을 주었다.

최경옥 : 캠프를 1년에 한 번씩 준비해주시고, 연합회 캠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구요.....

(2) 외부에 알려짐

외부에 알려진 것도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는데, '교육청의 관심', '뜻밖의 표창', '언론보도', '타학교 상담교사 자문'으로 하위범주화 되었다. 첫째, 학교를 방문한 도교육청 장학사가 또 래상담을 발굴하면서 상을 주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기자나 교사들에게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지도교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교육청의 관심은 학교의 또래상담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으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최경옥: 그래서 경기도에서 3년에 한 번 학교 평가를 하러 <u>장학사분들이 나오시는데 이게 너무잘했다. 그래서 학교 표창을 하겠다. 그래서 000도 교육감님이 표창을 해주셨구요</u>, 그 아이들을 잘지도한 지도교사는 누구냐? 그래서 지도교사는 따로 표창을 해주셔서 교육감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둘째, 외부에 알려진 또 하나의 계기는 '뜻밖의 표창'이었다. 또래상담을 운영 하던 상담교 사들은 뜻하지 않게 장관 표창, 교육감 표창, 지자체장 표창 등을 수상함으로써 외부에 알려지 게 되었고, 지역사회 내에서 유명한 학교가 되었다. 이런 표창은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또래상담자들의 자부심이 고취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김성권: 그니까 현수막을, <u>장관상 받았다고 현수막</u>을 걸었던 적이 학교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애요. (네) 당시까지는. 그래가지고 또래상담반 걸어놓으니까 그걸 교문 앞에다 걸어놓으니까 누구라도 다볼 거 아니에요. (네) 전교생 전교사가 다 볼건데 그 때부터 이제 또래상담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최경옥: 2001년에 <u>또래상담부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구요</u>,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01년에 또 <u>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상을</u> 받았구요. 2002년에 <u>상담부장학생인 ☆☆☆학생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u> 받았구요, 전국에 우수또래상담자로써, 또 2003년에 지도교사 우수또래상담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문화관광부 장관 수상을 했구요...... 2005년에 000도지사님께서 <u>또래상담부차장 ◇◇◇</u> 학생에게 경기도에서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청소년 대상을 주셔서 받았구요. 도지사님이 주신겁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하부기관인 <u>국가 청소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수상하는 위원장상을 2005년</u>, 2007년에 전국에서 대표인 것 같은데 표창을 받았구요,..... 우선 개별적으로 받은 학생이 자부심을 갖구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학교의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좋아하시구요....

셋째, 외부에 알려진 또 다른 계기는 언론보도였다. 또래상담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면접대상자가 운영하는 또래상담반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국민일보, 한겨례신문, 중앙일보, 지역일간지에 소개가 되고, KBS, EBS, MBC에서 취재해갔으며 TV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이런상황은 학교의 인식을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김성권: 우리학교에 기자, 중앙일보 기자가 좇아왔더라고요 (예)우리 아이들을 모델로 탁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면서사설란 같은 큰 란에 (음) 기사를 넣었더라고요 (음) 일간지에. (예) 그게 떡 나왔으니 인제 달라져야 되는 거지요. (음) 그 다음에 그랬더니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하자고....... KBS에서 방송을 하니까, EBS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그러다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아 이거 또래상담이 별다르구나'

넷째, 표창과 언론보도를 통해 학교가 외부에 알려지자 타학교 상담교사들로부터 자문요청과 자료요청이 들어왔다. 어떤 교사들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으며, 자기가 관리하는 또래상담자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해주기도 하였다.

최경옥 :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간 것을 보고 여기저기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굔가..., 거기는 아예 또래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여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u>이메일로 보내드린 학교도 여</u>러학교가 있구요, 전화로.. 저희들의 자료를 직접 우편으로, 주로 이메일로 많이 보내드렸구요,......

(3) 운영 중 기대 밖의 결실

또래상담을 운영하다보니 지도교사가 계획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다. 또래상담활동이 대학입학 수시전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대 이상으로 활동하는 또래상담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몇 해 진행하다보니 도움을 주는 졸업생 선배들이 출현한 것이다. 첫째, 또래상담활동에 시간을 뺏겨 대입에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래상담 활동으로 수시에 합격하고, 또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서류작성에도 도움이 되는 뜻밖의 일이 생겼다. 입시에초점에 맞추어진 학교 환경에서 이런 결과는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재적 조건으로작용하였다.

김성권:그 친구 (예) 걔가 사실은 좀 모잘랐습니다. 조금. (예) 근데 00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때 (음) 원서를 써주는 담임교사가 말렸습니다. 너 그 점수 가지고 거기 안 된다..... 상담원 교수님 추천 받고, 지역청소년상담실 추천 받고, 저도 또래상담 활동에 대해 추천서 쓰고. 몇일 뒤에 어머니께서 전화 다시 왔더라고요. (음) '선생님 됐어요, 됐어요' 그러더라구요......그래가지고 그 해 그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이대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서강대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잘들어갔어요..... (음)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고3 담임들은 '어? 내년부터는 또래상담 활동시켜야되겠네, 공부좀 잘하는 녀석들은 성적되는 애들은'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둘째, 또래상담 활동을 하다 보니 기대 이상인 또래상담자가 발견되었다. 또 활동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상담교사가 기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하나의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중재적 조건은 지도교사에게도 힘을 주었다.

최경옥 : 학생들이 시간을 내어서, 자기 용돈을 투자하면서 또래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점에서 감동적인 학생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어요.

김성권: 활동한 결과 이 아이들이 1기... 1학년 때 뽑아서 훈련하고 2학년 때 활동한 1기들의 <u>결과</u> 가 무척 좋았습니다. 좋았고, 사실 이 아이들이 2학년 중반, 또는 3학년 올라갈 때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리더쉽을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 아이들 중에 22명 중에 한 5-6명이 학급 회장 부회장으로 되더라고요. (음)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u>아마 제가 노린, 어떤 그런 전략적인...(기대했던 것?)</u> 기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착은 무난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또래상담이 수년간 진행되다보니 졸업한 선배들이 생겨났다. 졸업해서 대학생이 되거

나 직장인이 된 선배들은 후배들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또래상담자 훈련과 수 퍼비전에 도우미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졸업한 선배가 학교 교사가 되어 후배들을 방문해서 격려해주기도 하였다. 이런 선배들의 영향은 학교에서 또래상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재적 조건이 되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중재적 조건들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외부에 알려짐', '운영 중 기대 밖의 결실' 등으로 범주화 되었다. 외부에서의 지원은 Tindall(1995)이 제시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건이나 이상희 등(2004)이 제안한 것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금명자 등(2004)에서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표창수상'이나 '교육청의 관심', '언론보도' 등인데, 이것은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지도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희 등(1999)이 '적절한 보상'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이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래활동으로 수시합격, 졸업한 선배 출현 등의 '운영 중 기대 밖의 결실'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독특한 중재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4) 작용/상호작용 :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전략

참여자들은 어려움으로 초래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교사의 태도, 주변인 설득, 또 래상담자 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구사했다.

(1) 또래상담 담당교사의 태도

상담교사 자신의 태도는 또래상담을 학교에서 시작하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 담교사는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최경옥: 이때까지 한 것 보다 더 성실하게 일단 학교를 먼저 출근하고,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한 것 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하고,...... 참 애매하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일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보단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부터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관리자분들한테 나름대로 작게라도 인정을 받아야 그리고 나서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학교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극복하기도 했다.

김성권:<u>활동에 대한 자신감</u>이 있었습니다. (예) 아 이건 분명히 학교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음)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된다 (예...웃음) 상담실에 상담 못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해도, 옛날엔 상담교사가 그냥 앉아서 기다렸지만, 우리는 상담, 찾아나가는 상담 아닙니까? (네) 그런 활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전 뭐 그냥 자신 있게 스스로 극복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이런 태도는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학교나 전문가와 네트웍을 구축하려는 시도로도 표현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의 학교가 연대하여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면 관리자나 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성권:제가 이런 활동들은 이웃 학교에도 좀 잘 알려줘가지고 함께 연대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함께 했으면,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한 학교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음) 많이 있거든요. 활동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른 학교와 단체 함께 모일 때 숫자적으로도 커지고 큰일도 함께 할 수 있고, (예) 또 모양새도 괜찮고, 그럼 좋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2) 주변인 설득

참여자들이 설득하고자 했던 주변인은 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였다. 학교 내에서 또래상담 반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먼저, 사 립학교의 관리자는 학교 내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려는 사 람이 반드시 설득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면접 대상자들은 관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또래상담 활동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를 김성권은 구워삶는다고 표현 하였다.

김성권 : 그서 <u>교감선생님을 제가 구워삶고 행정실장 구워삶고</u> 해가지고 '아이고 애들 훈련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참여자들은 관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관리자가 직접 참석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김성권: 제가 처음 노린게 그거에요, 사실. 처음부터 교장선생님 학교에서는 부정적이었잖아요, 담임교사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1기를 하면서부터 1기, 2기 다 운영하고 <u>뭔가 성과적인 가시적</u>인 거를 좀 드러내야되겠다, 그래 학교가 번쩍 눈이 뜨일 거 아니에요. (예) 그 필요하겠더라고.....

두 번째로 설득해야 할 주변인들은 동료교사였다. 관리자가 학교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주변인이라면 동료교사는 매번 협조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참여자들은 동료교사를 대상

으로 홍보를 하거나 협조를 구하되, 그것이 담임에 대한 월권행위가 안되도록 조심했다.

최경옥 : 또 <u>담임선생님 하는 일에 너무 월권을 해선 안되고</u>.. 참 애매하고 여러 가지 복잡 미 묘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보단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설득한 주변인은 학부모다. 대학입학에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또 래상담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했다. 참여자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으면 또래상담 활동의 의 미에 대해 설명해주고, 또 필요하면 학교를 방문하도록 해서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설득했다고 한다. 김성권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또래상담 임명식과 겨울방학 캠프 등에 학부모를 초빙하여 참석토록 하였는데, 학부모의 이해를 끌어내는데 좋은 방법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경옥:가끔 부정적인 학부모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u>학부모들 상담을 해요</u> 극복을 합니다. 학부모들의 생각이 변하도록 <u>지도교사가 만나서 상담부에 대한 좋은 점을 소개하고</u>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면 더 좋고 이런 장점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복을 하고....

김성권: 제가 인제 노린 것이 임명식 할 때 학부형들을 (음) 그 또래상담자 학부형들을 오라고 그 랬지요. (음) 그 초청장을 같이 임명식 할 때......학교장님이 임명장을 준대는데 엄마들이 좋아하지요. 우리 아이는 반장도 아닌데 임명장 준다니까........... 임명식이 있대거나 방학 중에 행사가 있대거나 그 러면은 제가 서한을 다 보냅니다. 또래상담자 앞으로, 가정으로 해서 학교장님 허락받고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이러 이런 활동을 합니다'하고 보냅니다.....

위의 결과는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관리자와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게 또래상담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김진희 등, 1999; 이상희 등, 2004; Brackenbury, 1995; Cole, 2001; Tindall,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것을 사전에 알고 진행 했다기 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구사한 것이다.

(3) 또래상담자 관리

또래상담자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참여자들이 사용한 방법들은 '또래상담반 조직', '또래상 담자 교육', '지속적인 활동거리 개발', '활동 기록 남기기'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① 또래상담반 조직화

먼저, 또래상담반을 조직하기 위해서 선발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것은 동기가 없고, 미숙한 학생들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또래상담반 선배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해에는 상담교사 혼자 면접을 보거나, 성적순으로 뽑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로 선배 또래상담자가 면접을 보도록 방법을 바꾸어 나갔다.

김성권: <u>면접할 때는 제가 뒤에서 카운터를 하고, 앞에 전면에서는 선배들이 면접을 하고</u>, 근데 밖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벌벌벌 떨어요. 다리를 떨고 있어요. 면접하는게 쉬운게 아닌가봐요.

둘째, 공식적인 임명식을 개최하였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또래상담자는 일정기간 동안 또 래상담자 훈련을 받는다. 훈련을 마치면,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만 또래상담수료증이 주어지고, 임명장이 주어진다. 이때 참여자들은 임명식을 형식을 갖추어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래상담반 조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과 주변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권: <u>혼련을 해가지고 2학년 올라갈 때 3월달에 임명식.....</u> (음) 정식으로 (네)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장님 모시고, 한국청소년상담원......, 인근 우리 청소년수련원..... 그 관장님 오시라 그러고 (네) 또 경찰서에 학교폭력 관계되는 형사분도 한분 나오시고, 교육청...... 관계되는 분이 한분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u>일부러 거창하게, 좀 성대하게...</u>

셋째, 또래상담반에 임원조직을 갖추고, 학교에 동아리로 등록시켰다.

최경옥 : <u>US라는 동아리로 조직하였는데 조직은 부장과 차장을 두고요</u>.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학교는 차장을 2명씩 뒀습니다. 부장 1명에 차장 2명...

참여자들은 또래상담 동아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려 했다. 그래서 김성권의 경우에는 1기 선배들을 자질이 좋은 아이들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김성권: 예. 아. 왜냐면 첫 1기, 처음 출발하는 이 아이들이 전통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음) 어떤 단체든지.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정체성, 활동내용, 아이들의 모범적인 자세 다 포함되기 때문에 1기 처음 뽑은 아이들은 제가 훈련도 시켰지만은, 조금 자질이 좋은 아이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넷째, 인원이 늘어나고, 다양한 출신 중학교를 배경으로 아이들이 모이다보니 패가 갈리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상담교사는 또래상담자 구성원들끼리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냈다. 대체로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는 형식으로 제도를 만들거나, 수련회 등을 실시했다. 이 제도를 최경옥은 '자매제도'라고 하였고, 김성권은 '멘토'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김성권: 선배는 1학년들을, 우리가 좋게 말하면 멘토가 되가지고 챙겨줘요, 후배들을. (음... 또래 상담자들끼리?) 예. 짝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후배는 또 선배를 챙기고, 선배는 또 후배를 챙기고 (음) 1학년 신입 기 애들은 선배가 자기를 챙겨주는 것에 굉장히 긍지를 느껴요. 문제가 생기면 선배한테 뛰어가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또래상담자 아이들은 굉장한 긍지를 느낍니다. <u>얘들은 졸</u>업 후에도 밖에서도 만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최경옥:선배와 후배 또래 자매를 만들어주고요. 또래상담부끼리 자매를 만들고......자매를 만들어서 자매끼리 만약에 2학년에 있는 또래가 또래끼리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선배또래가 도와주고, 후배또래를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② 또래상담자 교육

또래상담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 실시는 또래상담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자발성을 유도하며, 제대로 또래상담활동을 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다. 또래상담자 교육은 훈련을 마치고 활동하는 동안에 제공되는 보수교육과 상담활동에 대한 수퍼비전으로 제공되었다. 또래상담자 교육에서 또래상담자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고 최경옥은 털어 놓는다.

최경옥: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자주 만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게 제일 많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성권의 경우에 또래상담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큰 알사탕을 주고,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켰다고 한다. 김성권: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서 <u>제가 전략적으로 아이들에게 또래상담을 시켰습니다. 실제로</u> (음) '니가 너희 반에 봤을 때에 친구로서 열악한 친구 또는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 하거나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거나 학교생활 부적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음) 그런 애 관찰하여서 너하고 친하진 않지만 친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음) 처음에는 제가 우리 또래상담자 아이들에게 <u>의무적으로 숙제를 내줬습니다. (음) 큰 알사탕 2개씩을 일부러 주면서 '니가 그</u>런 친구들을 보거든 일부러 말을 걸어라......

또래상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퍼비전을 실시하였다. 수퍼비전은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할 때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하는 형태였다.

최경옥 : 일지를 개인별로 걷고 남기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혼자 읽어보고 혼자 나름대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는 경우는 따로 불러서 개별지도도 하고

③ 또래상담반의 지속적인 활동내용 개발

또래상담자들이 또래 학생들을 상담하는 것은 대단히 기본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래상담에서의 상담의 방법도 내방상담이 아닌 찾아가는 상담을 학교상담교사들은 모두 전제하고 있었다. 또래상담자들은 이런 상담교사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었다. 또래상담자들은 문제가 있는 또래의 가정에까지 찾아가서 상담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였다. 또래상담자들이 상담활동을 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상담교사가 제안을 하거나 또는 또래상담자들 스스로 대안을 찾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이었다. 이메일과 게시판을 통해 상담 활동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 수퍼비전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학교 안에서는 또래상담자들만의 고유한 업무가 필요했다. 최경옥은 사랑의 우편함을 운영하고 있고, 김성권은 또래상담자들이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학교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

김성권: 1학년들, 신입생이죠? (음) 3월달에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합니다. 그니까 시간상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열두반 열다섯반 되니까, 하루에 3반씩 남겨가지고 (음) 조를 편성하면은 한 15개 편성이 되요. (음) 그럼 저희 아이들이 15명 필요하잖아요. (음) 하루에 한반두반 남겨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투입되가지고 각 반을 조별로 나눠가지고 집단 심성수련훈련을 합니다. (네) 그때 그 1학년들이 많이 바뀌어요. 중학생들 처음 1학년으로 올라올 때 엄마들이 전화가상담실로 많이 옵니다. (음) 왜냐면은 '과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 적응할까'......고등학교는 다 다른 중학교에서 올라온 이질 집단이니까 이 갈등이 알력이 좀 생겨요. (네) 같은 중학교 나온 애들끼리 타학교 애들하고 알력이 생겨, 패싸움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학부모가 무척 걱정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는 1학년들은 딱 묶어가지고 심성수련을 사실 우리는 한회밖에 안 하는 건데, 하루 오후 남겨서 한 2시간 정도 하는 건데도, 굉장히 처음 만난 아이들끼리 친해져요. (아) 마음 타놓고 이야기 하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 프로그램은 매년 학년 초에 해야된다, 이거' (아) 학교아이들 적응하기 위해서도, 학교폭력 예방 위해서도, 왕따 예방 위해서도 이거 진짜 중요한거구나(음) 필요한 거구나.

④ 기록을 남김

아이들의 활동을 일지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는 일은 처음에 훈련차원에서, 수퍼비전을 실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최경옥의 경우를 보면 자기반성도 되고 수퍼비전도 할 겸 일지 기록을 실시하였으나, 자료를 모으다 보니 좋은 자료로 구축이 되어 상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한다.

김성권의 경우 상담일지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활동을 평가해볼 수도 있었다.

김성권 : 상담일지를 써오게 했습니다. (음) 그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Brackenbury(1995)는 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숙한 또래상담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희 등(1999)은 또래상담운영의 성패가 또래 상담자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또래상담자의 자질을 강조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선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질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고자 한 것도 이전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이해할 수 있다. 또한 또래상담 훈련에 대해서도 단기적이기 보다 장기간 지도감독 하에 실습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금명자 등, 2004; 이상희 등, 2004; Brackenbury, 1995; Tindall,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에서 또래상담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런 인식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운영에 관한 이전 연구에 없는 것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독특한 작용/상호작용은 '또래상담반 조직화'와 '지속적인 활동거리 개발'이다. 이것은 고등학교에 또래상담을 지속 또는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 하에 진행된 작용/상호작용이라 여겨진다. 이에 더해서 Brackenbury(1995)는 또래상담반 활동 내용에 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등이 필요 하다고 주장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나름대로 학교의 요구를 반영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5) 결과 : 또래상담자들의 변화와 학교 관계자의 인정 하에 정착하다

중재적 조건과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또래상담자들의 변화', '주변인들에게 인정 받음', '상담교사의 자부심', '학교 여건 변화' 등 네 가지 범주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것은 결국 또래상담 이 학교에 정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 또래상담자들의 변화

작용/상호작용 결과 또래상담자들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자발적으로 상담활동을 하는 또래상담자들이 눈에 띄었고, 친구들에게 도움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을 재미있어했으며, 그것을 상담교사에게 자랑하는 또래상담자들이 나타났다.

최경옥 : 학생들이 우선 고민이 생기면 그 <u>친구 것을 해결해주고 나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친구가</u> 달라지는 것을 보면 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게 제일 기쁜 일이었습니다.

둘째, 이런 또래상담자들의 변화는 가정에까지 모범적인 태도로 이어져서 부모의 부정적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경옥 : 학교에서. 그리고 그게 <u>집에까지 연결되도록</u> 아이들을 지도를 하구요. <u>아이들이 달라지는</u> <u>것을 보면서</u> 학부모들이 절대 이의를 제기 안하죠. 불편을 얘기 안하구요. 그리고 또래상담자들은 친구를 돕는 활동 때문에 친구에게 모델이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김성권: 그러나, 그러나 <u>또래상담 활동을 한 아이들은 (음) 공부를 또 잘 해</u>요...... 왜냐면은 <u>친구</u> 를 도와주고 친구에게 다가갈려고 하면 도우미 모델이 되어야 하니까 (음) 열심히 합니다. (네) 잘 따라가요....

셋째, 또래상담자들은 효과적으로 또래상담 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있는 아이들까지 찾아내서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했다.

최경옥:제가 아이들 문제를 전교생 모두를 살필 수 없고, 담임도 일일이 살필 수 없는데 친구들이 그걸 구석에 있는 아이들까지 찾아내서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있어 주고, 도와줘서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니며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넷째, 또래상담자의 변화는 또래상담반이 자치적인 조직의 특성을 갖추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줄어도 학생들끼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성권: 예. 돌아갑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끼리 물려주고 물려주고 배우고 하는 게 되더라고요. 이게 학교 문화가 아닙니까? 청소년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음) 그냥 지도자들은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바라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즉 또래상담의 목표가 이런 쪽이니까 방향만 제시해 주고, '우린 이거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거야. 우린 이래야 돼. 너희 선배들을 봐라. 선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2) 주변인들에게 인정 받음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주변인들의 인정을 끌어냈다. 먼저 학교의 관리자들의 인정을 끌어냈다는 것을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지적했다. 사립학교인 경우 재단에 서까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최경옥 : 저희는 특별히 <u>재단이 ㅇㅇ그룹인데 재단에서도 좋아하시구요</u>. 그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구요.......

둘째, 동료 교사들의 인식이 변하였다. 또래상담 활동 시간을 당연하게 인식해서 학생들을 보내주게 되었다. 또한 담임들이 또래상담자에게 상담을 의뢰해줄 만큼 또래상담자들을 인정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래상담자가 활동을 잘 하면 담당교사에게 와서 그 학생을 칭찬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지 발언을 해주기도 하였다.

최경옥:또래 상담반 학생들이 특별히 <u>자기 반에 있는 또래가 잘했다. 어떤 어려운 또래를 도와줬다. 그</u>럴 경우엔 제게 와서 그 학생 칭찬을 오히려 담임이 하십니다. 그리고 <u>또래가 필요하다. 그</u>렇게 얘기.....당연히 선생님들은 000고 또래상담자반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편이구요.

셋째, 학부모들이 또래상담을 인정하게 되었다. 최경옥의 경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학교에 찾아와 감사해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자기 자녀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최경옥: 제가 보았을 때, 그 가정에서 고맙다고 학교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거나, 전화를 주시 거나 해서 그 또래 학생이 정말 고맙다 말씀해 주실 때 감사하구요, 그게 젤 기억에 남고, 실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앞으로 더 좋은일이 있겠지... 학부모들도 제 딸이 친구가 없는데 또래학생 누구하고 친구 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는 어머니들도 가끔 계셨구요....

이런 상황이 되자 김성권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김성권: 제가 방학에 캠프를 하는데 어떤 학부형들은 (자체 캠프인 거죠?) 예. 어떤 <u>학부형은 이걸 알고 밑반찬을 다해오고</u> 그런 부모님도 계셨어요.....임명식 때 어머니들이 와서 다과 세팅 해놓고....

넷째, 학교 내에서 또래상담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또래상담반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고, 수준도 높아졌다.

김성권: 요즘은. <u>우리는 많이 오는 편이라</u>, 다른 써클에 비해서. 어떤 써클은 애들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70명 오는 건 많이 오는거네요). 예. 많이 옵니다.

최경옥 :학생들 자체가 자부심을 갖고 선배또래와 후배또래끼리 연결이 되면서 <u>신입생 지</u>원자가 늘어가고 있구요, 지원자의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구요,.....

(3) 담당 상담교사가 자부심 느낌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서 담당 교사가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또래상담을 하면서 또 래상담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최경옥 : 그런 것을 보면 <u>내가 또래하길 잘했다. 지도교사 하길 잘했다</u>. 이런 생각이.....<u>또</u> <u>래상담반을 지도한 것은 정말 내 인생에서 잘한 일이다...</u>

(4) 학교 여건의 변화

작용/상호작용 결과 학교 여건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래상담반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일이 상담실 전용공간의 확보다. 이미 상담실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한 참여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담실 확보가 큰 관건이었다. 최경옥의 경우에는 없는 공간에서 시작하여 교장실보다 더 큰 상담실을 확보하게 되었다.

최경옥 : 첨에는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은 있었는데, 인식이 달라지고 나니까 <u>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이거 공간을 넓혀야 되겠다</u>......., 보다시피 저희 학교 공간이 작은데 공간이 협소한 학교에서 상담실이 큰 편이거든요. 이게.... 우리 학교에선 <u>아마 교장실보다 더 큰 것 같애요</u>. (웃음) 이런 것들이 아마 또래상담반이 열심히 한 보람, 결과인 것 같습니다.

둘째, 예산을 확보되었다. 예산 확보는 학교로부터의 지원과 지역상담센터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또래상담자 훈련에 소요되는 간식비라든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셋째, 상담부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허용 받음으로써, 또래상담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립고등학교라고 하여도 보통 보직이 2년마다 변동되기 마련인데,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참여자들은 상담부장, 혹은 상담부 교사를 5년 이상 연임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료교사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최경옥:우선 학교에선 계속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매년 3년씩 로테이션 되는데 <u>상단</u> 부장 자리에 계속 있게 해주셔서 그 때부터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래상담 담당교사의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담임을 면제해주고, 지도교사를 추가로 배치해주게 되었다.

최경옥: 교장선생님께서 먼저.......선생님을 담임에서 빼야 되겠다. 지도교사 하나를 더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공간도 넓혀주시고, 지도교사도 배치해 주시고, 지금은 담임도 안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전폭적으로 열심히 매달리도록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넷째, 최경옥의 경우에는 또래상담자 선발 및 등반시 반배정에서도 학교로부터 배려를 받고 있었다. 최경옥의 경우 학년 초에 동아리 신입생을 모집할 때 또래상담반을 먼저 선발하도록하고 학교에서 배려해주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래상담에 적합한 학생들이 다른 동아리로 가지 않고 또래상담반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경옥 : 그래서 <u>클럽활동을 할 때 학년 초에 먼저 선발하는 시간을 줍니다</u>. (또래상담반을?) 네, 먼저 선발을 하고 다른 부서를 선발하는 그런 특별한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학년을 등반할 때는 또래상담자들을 별도로 반배정함으로써 또래상담자가 한 반에 몰려 배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또래상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또래상담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경옥:학교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은 <u>2,3 학년 올라갈 때 분반을 할 경우에 또래는</u> 각 반에 들어갈 수 있게 분반을 해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얘기해주세요.) 2월에 분반 을 합니다. 3월에 새 반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우에 학생들을 분반을 컴퓨터로 해 놓고 <u>또래 상담부가 없는 반이 없도록 또래끼리 다시 분반을 합니다</u>. (아하, 일반 학생들을 다 분반한 후에?) 네, 후에. 수작업으로 합니다. 또래끼리 따로.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해주는 거죠. 이건 교무부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관리자의 도움 없이는 안되는 거죠. 그래서 <u>또래가 각 반에 반드시 들어가도록.</u>.....지금까지 업무분장 끝나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당연히 또래는 각반에 배치하는 거다. 지금 계신 선생님들은 이의 제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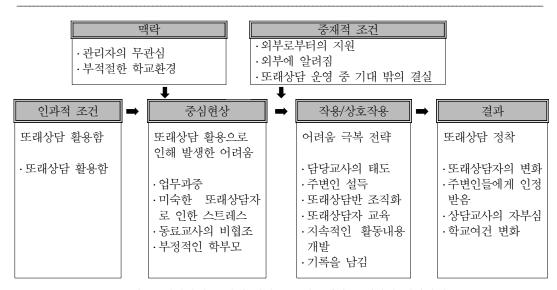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결과 또래상담자들이 자발적으로 효과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런 활동으로 또래상담자들은 학교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와 동료교사들이 긍정적으로 또래상담을 인식하고 도와주게 되었으며, 학부모가 또래상담 활동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또래상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으며,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을 운영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교 여건도 변하였는데, 상담실과 예산이 확보되었고 붙박이 상담부장을 인정하게 되었고, 상담부장에 대한 업무 줄여주기와 선발 및 반배정시 또래상담반을 우선 배려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관리자 및 동료교사들의 호응과 학교의 여건이 변하면서 또래상담은 고등학교에 정착된 동아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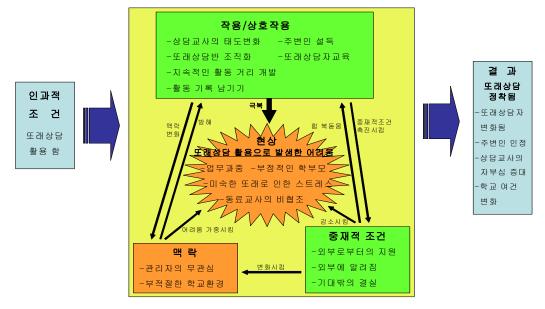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이 정착되는 과정을 Strauss 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인과적 조건부터 작용/상호작용 결과까지 설명하였다. 이를 도표로 요약해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또래상담을 학교에 정착시킨 교사들은 '또래상담 활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다. 만약 또래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겪지 않았어도 될 현상들이학교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래상담을 활용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상담실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래상담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또래상담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은 교사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어려움의 내용은 '업무과중', '미숙한 또래상담자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교사의 비협조', '부정적인학부모'로 범주화되었다. 이런 어려움 즉 현상을 가중시킨 맥락은 '관리자의 무관심', '부적절한 학교환경'으로 범주화 되었다. 부적절한 학교환경으로는 학교상담실에 대한 왜곡된 지식등오해가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진학 위주의 교과과정이나 빈약한 여건 등이어려움을 가중시킨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활용하던 지도교사는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담당교사의 태도', '주변



[그림 2]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 정착과정

인 설득', '또래상담반 조직화', '또래상담자 교육', '지속적인 활동내용 개발' '기록을 남김'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중심현상을 극복하고 작용/상호작용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한 중재적 조건이 '외부로부터의 지원', '외부에 알려짐', '또래상담 운영 중 기대 밖의 결실'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들 중재적 조건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중심현상인 '또래상담반 활용으로 인한 어려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맥락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작용/상호작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북돋워



[그림 3] 면접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또래상담 정착 과정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결국 또래상담이 학교에 정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과적조건, 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의 결과간 관계를 재구성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인과적 조건으로 촉발된 현상은 맥락에 의해 가중된다. 이렇게 가중된 현상 때문에 참여자들은 작용/상호작용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은 현상 뿐 아니라 맥락까지도 변화를 촉구한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이 작용/상호작용을 돕게 된다. 그와 동시에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촉진되며, 중재적 조건은 맥락을 변화시키는 영향력도 가지게 된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상담이 정착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직선적이라기 보다 다분히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작용/상호작용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또래상담자들이 변하고, 주변인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또래상담 담당교사의 자부심이 증대되고, 학교 여건이 변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상으로 작용한 '업무과중', '미숙한 또래상담자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교사의 비협조', '부정적인 학부모'는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되었고, 이런 극복과정에서 또래상담이 정착되는 결과를 연구참여자들은 경험하였다. 그러나 '극복되었다' 또는 '변화하였다'라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또래상담 담당교사의 입장에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극복되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을 보는 담당교사의 시각 변화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상이나 맥락이 극복되었다는 것은 완전히해결되었다거나 또는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남아 있고, 여전히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나 전체 정황으로 보아 또래상담을 운영 하는 것을 가로막을 만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착과정을 분석하면서 운영이나 정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독특한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또래활동으로 수시합격, 졸업한 선배 출현 등의 '기대 밖의 결실'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독특한 중재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래상담이 학교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선행연구자가 언급했던 내용이 실제로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재적 조건으로 범주화된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Tindall(1995)이 제시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건이나 이상희 등(2004)이 제안한 것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구광현 등(2005)과 금명자 등(2004)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재적조건에서 범주화된 '외부에 알려짐'은 '교육청의 관심', '뜻밖의 수상', '언론보도' 등인데, 이것은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지도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희 등(1999)이 또래상담운영방안을 연구하면서 '적절한 보상'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이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들이 어려움의 극복 전략으로 취했던 작용/상호작용은 또래상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선택된 것들이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작용/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전략들이 있었으

나 우리나라에서는 미처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고, 이를 사전에 숙지할 지침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상담 지도교사들은 외국에서 선행된 것과 유사한 작용/상호작용을 구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Brackenbury(1995), Cole(2001), 그리고 Tindall(1995) 등은 학교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게 또래상담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 것을 미리 인식했다기 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깨달아 하나의 전략으 로 구사한 것이다. Brackenbury(1995)는 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숙한 또래상담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훈련에 대해서도 단기적이기 보다 장기간 지도감독 하에 실습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금명자 등, 2004; 이상희 등, 2004; Brackenbury, 1995; Tindall,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 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또래상담 정착기준 ④월 1-2회 교육, ⑤연간 30시 간 이상 훈련 및 활동지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전문가 패널들이 선정하였으며, 정착된 고등학 교에서도 실제로 정기적인 훈련 및 수퍼비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작용/상호작용에는 선행연구 에 없는 것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독특한 작용/상호작용은 '또래상담반 조직화'와 '지속적인 활동거리 개발'이다. 이것은 고등학교에 또래상담을 지속 또는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 하에 진행된 작용/상호작용이라 여겨진다. 이에 더해서 Brackenbury(1995)는 또래상담반 활동 내용에 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등이 필요 하다고 주장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 들은 나름대로 학교의 요구를 반영시키고 있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착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등기타 다른 류의 학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추후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학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다양한 지식이 축적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또래상담 정착과정은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착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범적인 학교들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다소 모범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줄 만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정착에 실패한 경험을 가진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정착과정에 대한 또 다른 특성이 발견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04).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추진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5). 또래상담 활성화. 교육마당21 4월호.

구광현, 이정윤, 이재규, 이병임, 은혁기(2005), 학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금명자, 장미경, 양미진, 이문희(2004). 청소년 또래상담.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김계현, 권대훈, 이상란, 이창호, 최균희, 추석호, 홍태식(2003). 학생 상담활동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교육마당21 6월호.

김진희, 이상희, 노성덕(1999). 또래상담 운영방안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노성덕, 김계현(2007). 학교 또래상담 정착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 담연구 15(1), 29-38.

노성덕, 김계현(2004). 국내 또래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2), 3-10.

노성덕, 이문희(2001). 2001년 전국또래상담 운영현황. 또래상담소식 6, 14-21. 서울:한국청소년상 당원.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2003). 또래학생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중·고등학생용.

안창일(1999). 학교상담의 발전방안. 교육연구 364호, 14-17. 한국교육연구소.

연문희, 강진령(2002). 학교상담-21세기 학생생활지도. 서울:양서원.

오혜영, 지승희, 조은경, 백현주, 신주연(2006). 또래상담 조직의 운영체제 구축 및 활성화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2004), 또래상담, 서울:학지사,

이재규(2005). 학교에서의 집단상담-실제와 연구-. 서울:교육과학사.

천성문, 설창덕(2003).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상담자의 역할과 과제. **상담학연구** 4(3), 563-575.

Brackenbury C.(1995). Peer helpers plus. Ontario: Pembroke Pub.

Carr R. A.(1998). The theory and practice of peer helping. Victoria: Peer Resource.

Carr R. A., & Saunders, G. A. K.(1998). Peer counselling starter kit. Victoria: Peer Resource.

Cole T.(2001). Kids helping kis. Victoria: Peer Resource.

Guba, E. G. & Y. S. Lincoln(1981). Effective Evaluation. Jossey-Bass Publishers.

Myrick R. D., & Sorenson D. L.(1997). *Peer helping: A practical guide.* MN: Educational Media.

- Schmidt J. J.(1996). Counseling in schools(2nd). Boston: Allyn and Bacon.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 Tindall J. A.(1995). Peer programs. in 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Bristol: Accelerated Development Inc.
 - * 논문접수 2007년 8월 9일 / 1차 심사 2007년 8월 14일 / 2차 심사 2007년 9월 6일 / 3차심사 2007년 9월 14일
 - * 노성덕: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전공으로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을 전공으로 하여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역저서로는 "또래상담", "청소년 비행 및 약물중독상담", "상담기관의 카운슬러되기" 등이 있다.
 - * e-mail: rhomio02@snu.ac.kr/ rhomio@kyci.or.kr

Abstract

An Analysis on the Establishing process of Peer Counseling in Woman Academic High School by Grounded Theory

Sung Durk Rho*

Peer counseling for adolescence has developed since 1990s and it specially has showed great growth in schools. Many professional counselors and school counselors introduce peer counseling as an effective counseling method in school. The reason why peer counseling can be applied to school is as follows. First, youth tends to open their problems to peers because they believe the peers share common culture and experience. Thus peer counselors are easily accepted as their friends. Second, peer counselors take the roles as paracounselors in schools where there are not enough professional counselors in Korea. Teachers wh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school counseling" make good use of the peer counselors. However, in spite of the practical usefulness, there been little studies on analysing how it has been established in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by means of interviewing teachers. We informed the 7 standards of peer counseling establishment to 16 Youth Counseling Centers nationwide and asked for recommendations of high schools that fulfill the 7 standards. A total of 52 high schools were recommended and 15 high schools were selected with consideration of regional balance. Finally, 2 woman academic high schools were available to participate in the study. Interview data was analyzed by grounded theory approach.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The core phenomenon of the data was 'Difficulties in running peer counseling'. The major context which aggravate 'Difficulties in running peer counseling' were 'Indifference of school administration' and 'an improper school environment'. The intervening conditions which overcome the difficulties were 'Support from outside', 'Concern of national education organization', 'Publicity widely', and 'Unexpected outcome'. The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ction/interaction which the interviewees us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were categorized as 'Changing counseling teacher's attitudes', 'Persuading other people' 'Systemazing peer counseling club', 'Educating peer counselors', and 'Developing continuous peer counseling activities'. These intervening conditions and interactions resulted in change of school conditions such as 'change of peer counselors', 'recognition from other people', 'securing counseling room facilities and budget', and 'low turnover of the counseling teacher' and facilitated peer counseling establishment in schools.

Key words: Peer counseling, School counseling. Establishing process, Grounded theory